

미술심리상담사(2급) 작업일지

날 짜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회 기	7 회기
주 제	인본주의 심리학 및 자기 인식	기록자	이우연
목 표	'자기 인식'은 통해 자신의 내적 모습을 확인하고 자기 표현과 더불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 외부적으로는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인식의 폭을 넓힌다.		
매 체	*감정탐색 - 활동지, 색연필, 펜 *점토 자화상 - 테라 점토 2개, 물, 길딩 왁스, 아크릴물감(검정50ml), 붓		
진행과정 (Process Recording)	'나의 감정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1) 활동지에 7가지 그림을 개인적으로 해석한다. 2) 7가지 그림의 각각의 감정의 이름들을 붙여 준다. 3) 감정의 이름과 더불어 설명을 한다. 4) 감정의 내용에 맞게 채색을 한다. 5) 왜 감정의 이름을 붙여는 지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나눈다. '점토 자화상' 1) 눈을 감고 자신의 얼굴, 신체를 만져보면서 충분히 느낌을 가진다. 2) 점토를 이용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다. - 점토제작 활동에 이어 채색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 3)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이 표현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활동 작품	   		
감상 및 평가	'나의 감정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활동지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림 형상들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일상 생활에서는 기분이 좋은 경우는 정말 짧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나의 감정을 잘 모르는 상황이 더 많은 것 같다. 웃지 않는다고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아니지 않는가. 다소 빠죽해 보이는 형상을 '물라'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 이유는 나도 나의 마음을 모르니 잠깐 감정의 유예 시간을 주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울고 있는 형상에는 카타르시스(catharsis)에 '카타르'를 부분적으로 차용해서 이름을 지었다. 우는 행위는 외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리적 욕구의 하나이다. 울다 보면 해소도 되고 눈물도 마르지 않는가. '점토 자화상': 재료적인 측면에서 흙의 색깔과 냄새를 온전히 전달해 사용할 때 흙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미술적으로 잘 만들려면 거울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했겠지만, 40년이상 익숙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그럴 꺼라고 믿는 나의 얼굴을 손끝으로 만들었다. 주관적인 나의 얼굴에 대한 해석이지만, 얼굴에서 나의 눈, 코, 입, 귀, 두상들을 짐작하면서 새롭게 머릿 속으로 떠올리는 활동이 색다른 경험이었다. 매끄러운 느낌 보다는 텍스처의 거친 느낌을 살리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작업에서 오는 즐거움과 함께 생동감을 불어 넣기 위해서이다.		